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3호 【루계 제25021호】 주체10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일심단결의 기치높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더욱 굳게 간직하고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것은 천만군민이 령도자와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하며 억세게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강국, 선군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일심단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의 모든 승리의 원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우리의 통일단결,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총폭발시키며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총돌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혁명철학이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올해 정초부터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왔다.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더욱 고조되고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조국의 영예와 존엄이 높이 떨쳐지고있다. 전쟁접경에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속에서 만방에 과시된 우리의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이며 필승의 기상이다.

우리는 오늘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와 무적의 힘을 더욱 세차게 폭발시키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백배, 천배로 억세여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기에 총돌격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령도자와 인민이 숭고한 믿음과 의리, 사랑과 충정으로 맺어진 위대한 혼연일체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뉴대는 혁명적단결의 초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은 충정의 일편단심을 낳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철의 신념이다.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접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에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가장 숭고한 사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삼지연군 대상건설 및 개건보수공사를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무조건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운 내각지휘부일군들은 들끓는 건설현장에 깊이 들어가 매일 공사실적을 따져가며 현장지도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체육성의 건설자들이 빙상호케이경기관과 속도빙상경기장, 체육인숙소를 비롯한 10여개 대상들에 대한 보수공사와 산악스키장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리영철, 리정철동무를 비롯한 성의 일군들은 화선식경제선동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건설기계와 자재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워보장하고있다.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일군들과 미술가들은 현지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삼지연군경기장 등 건설 및 개건보수대상들의 현판, 간판, 마크, 안내도, 방향알림판을 비롯한 수백개의 각종 도안을 건물의 사명과 양상에 맞으면서도 시대적미감이 나게 완성하였다.

량강도려단 건설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숙영각들과 식당들, 합숙을 비롯한 대상공사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삼지연군경기장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이곳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 종업원들, 가두녀맹원들은 방대한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끝내기 위하여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문화성, 상업성, 량강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건설자들도 맡은 대상공사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국가과학원과 원유공업성에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과 삼지연군문화회관 지열난방보장을 위한 지열수탐사시추굴진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연구사들, 두만강지질탐사단 기술자, 탐사대원들은 현지에 탐사기재와 시추설비를 이동전개하고 48개소에 대한 물리탐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여러개 시추지점에 대한 추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어 이들은 자재보장을 맡아나선 채취공업성과 국가자원개발성, 도시경영성 일군들의 방조밑에 보벽판, 려과판설치작업을 전부 끝내고 양수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외무성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들에서 세멘트, 색철판지붕재, 타일, 비닐레자를 비롯한 자재와 각종 륜전기재들, 삼지연군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성의껏 보내주어 건설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또한 체육성 부원 우남희, 평양외국어대학 학생 김수련, 모란봉구역 진흥초급중학교 학생 백리향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앞을 다투어가며 건설장을 찾아와 건설자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누구나 높은 자주정신과 창조적투쟁, 불타는 애국심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긍지높이 들어서겠다는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더욱 힘차게 돌진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공격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온 나라가 세차게 끓어번져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다. 인민군대가 강성국가건설의 맨 앞장에서 폭풍쳐 내달리고 온 나라가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풍으로 싸워나갈 때 우리 조국의 휘황한 미래는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된다.

인민군군인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돌격대답게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내며 맡은 중요건설대상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사업을 인민군대식으로 전격적으로, 립체적으로,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목표를 세워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우고 실천을 해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속전속결하여야 한다.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강행돌파하는 인민군대의 불굴의 공격정신이 모든 전투장마다에 차넘쳐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의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깨끗한 량심과 단숨에의 기상으로 대비약적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오늘의 총돌격속도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자기의 신조로, 넋으로 간직하여야 하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그대로 흘러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한가지 일을 하여도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는 일군, 자기의 뼈를 깎고 피를 바쳐서라도 인민생활을 끝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일군, 대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들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는 일군이 우리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이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오늘의 총돌격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사업을 심화시키고 그들이 우리의 승리의 요인과 비결에 대하여 심장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온 나라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분위기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창건 70돐을 향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나가자.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삼지연군 대상건설 및 개건보수공사 적극 추진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대상건설 및 개건보수공사장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과 량강도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지난해부터 삼지연지구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일신하기 위한 방대한 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현재까지 총공사량의 80%계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내각지휘부에서는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대상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서고있는데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모든 공사를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무조건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운 내각지휘부일군들은 들끓는 건설현장에 깊이 들어가 매일 공사실적을 따져가며 현장지도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체육성의 건설자들이 빙상호케이경기관과 속도빙상경기장, 체육인숙소를 비롯한 10여개 대상들에 대한 보수공사와 산악스키장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리영철, 리정철동무를 비롯한 성의 일군들은 화선식경제선동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건설기계와 자재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워보장하고있다.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일군들과 미술가들은 현지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삼지연군경기장 등 건설 및 개건보수대상들의 현판, 간판, 마크, 안내도, 방향알림판을 비롯한 수백개의 각종 도안을 건물의 사명과 양상에 맞으면서도 시대적미감이 나게 완성하였다.

량강도려단 건설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숙영각들과 식당들, 합숙을 비롯한 대상공사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삼지연군경기장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이곳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 종업원들, 가두녀맹원들은 방대한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끝내기 위하여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문화성, 상업성, 량강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건설자들도 맡은 대상공사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국가과학원과 원유공업성에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과 삼지연군문화회관 지열난방보장을 위한 지열수탐사시추굴진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연구사들, 두만강지질탐사단 기술자, 탐사대원들은 현지에 탐사기재와 시추설비를 이동전개하고 48개소에 대한 물리탐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여러개 시추지점에 대한 추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어 이들은 자재보장을 맡아나선 채취공업성과 국가자원개발성, 도시경영성 일군들의 방조밑에 보벽판, 려과판설치작업을 전부 끝내고 양수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외무성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들에서 세멘트, 색철판지붕재, 타일, 비닐레자를 비롯한 자재와 각종 륜전기재들, 삼지연군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성의껏 보내주어 건설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또한 체육성 부원 우남희, 평양외국어대학 학생 김수련, 모란봉구역 진흥초급중학교 학생 백리향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앞을 다투어가며 건설장을 찾아와 건설자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충성의 다리 개건보수공사성과 확대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는 쑥섬과 련결된 충성의 다리 개건보수공사장에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명혁소속부대 장병들은 다리의 기본구조물들인 신축부분과 차도로, 다님길보수를 비롯한 아름찬 공정들을 빠른 속도로 끝낸데 이어 다리공사의 마감대상인 란간돌조립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충성의 다리 개건보수공사는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로 되는 중요한 건설대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6월 쑥섬을 찾으시고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면서 충성의 다리를 개건보수할데 대한 웅대한 전망을 펼쳐주신데 이어 공사를 빠른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치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쑥섬개발공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충성의 다리 개건보수공사는 다리상부의 차도로와 사람들이 오가는 다님길의 낡은 포장층을 전부 들어내고 신축부분과 경계석을 보다 견고하게 형성하며 여러 개소의 다리기둥과 다리턱도 보강하여 구조물의 련리성과 미학성, 안전성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는 아름찬 건설사업이다.

우리 인민들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다리의 전구간은 천연화강석으로 란간이 형성된다. 그리고 평천지구에서 쑥섬까지 오가는 다리구간에는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로선을 동시에 형성하는 조건에 맞게 가로등과 전차선로공사도 새로 진행하게 된다.

다리개건보수공사를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착공후 석달동안에 2만 6천㎥에 달하는 다리상부의 기본도로와 4천여㎥의 다님길구간을 새로 개건하고 경계석형성공사도 단숨에 해제꼈다. 부대아래 허림, 황성산소속구분대 전투원들은 두달동안에 해야 할 280㎥에 달하는 어려운 신축부분 교정작업을 불과 한달동안에 다그쳐 끝내고 다리상부의 콩크리트치기도 단숨에 해제껴 기본도로로반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김인덕, 김경철소속구분대 전투원들도 다님길의 낡은 포장면을 들어내고 구조물수정과 보도판조립을 비롯한 매 공정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기간 부대장병들은 측량작업에 힘을 넣고 경계석을 새롭게 형성하는 틀과 돌조립지구를 비롯한 합리적인 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속도와 질을 끊임없이 높이였다.

3천여㎥에 달하는 방대한 습식공사가 전부 끝나고 란간돌조립공사가 한창인 지금 군인건설자들은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공격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강철남, 김수철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관들은 란간돌보장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을 지니고 수십명의 력량과 함께 광산들에 달려가 생산전투를 벌리는 비상한 창조정신을 발휘하였다. 리운학소속구분대 초기복무사관들인 김길남, 김성일, 김성학동무를 비롯한 자동차운전사들은 석재운반전투를 힘있게 벌려 부대적인 란간돌조립성과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부대장병들의 불같은 돌격정신에 의해 지난 30일현재 600m이상의 다리란간이 손색없이 완성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한편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로선, 가로등설치공사를 맡은 해당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 창조적열정을 발휘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평양강냉이가공공장건설 완공, 생산 시작

평양시에서 뜻깊은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강냉이가공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락랑구역의 1만 수천㎡의 면적에 자리잡은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생산능력이 크고 원료투입과 포장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무인화, 무진화, 무균화된 종합적인 강냉이가공공장이다.

새로 건설된 공장에는 국수와 옥쌀, 단묵과 강냉이파자, 강냉이튀기, 기름, 찐빵을 생산해내는 7개의 생산장들과 종합조종실, 과학기술보급실, 실험분석실, 위생통과실, 제품견본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지고 종업원들의 편의보장을 위한 내정과 목욕탕, 식당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구내에는 원료싸이로와 변전실, 차고를 비롯한 보조건물들이 구색이 맞게 건설되고 휴식터와 수천㎡의 잔디밭, 19종에 수천그루의 과일나무, 꽃관목, 여러 수종의 나무들이 심어져 구내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공장의 건물지붕에는 태양빛전지판과 태양열물가열기가 설치되여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평양시에 현대적인 강냉이가공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평양시에서 강냉이가공공장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여러차례의 귀중한 말씀을 주시면서 공장건설방향과 방도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공장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시안의 여러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평양시건설사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사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락랑구역과 대동강구역, 선교구역과 력포구역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장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매일 맡겨진 과제를 초과수행하면서 모든 대상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시안의 여러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30여종에 수십대에 달하는 설비들을 창안제작하고 60여종에 수천점에 달하는 자동화요소들과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하여 공장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공장에 분석실들을 새로 꾸리고 미생물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분석체계를 확립해주는것과 함께 생산물의 질지표에 관한 분석도 진행할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주어 공장에서 제품들의 분석지표를 정확히 알고 품질관리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높은 과학기술적성과로 세계를 압도해나갈 자신만만한 투지와 열정을 안고 피타는 사색과 연구를 거듭하며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공장설비들을 무인화하는데서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공정조종과 경영관리, 생산관리를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분공정, 국수공정, 찐빵공정과 송배풍체계를 설계제작하고 무진무균체계를 송배풍체계와 결합하는 사업과 함께 전력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공장의 현대화에서 큰 몫을 맡아 해제끼였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도 결사의 각오를 안고 현대화의 첫 공정인 기술과제서작성을 한주일만에 해제낀 기세로 조립공들과 합심하여 원료싸이로의 공정설계는 물론 조립을 단 보름만에 성과적으로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이와 함께 옥쌀생산공정과 기름생산공정, 단묵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의 무인화를 실현하는데서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를 완성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기계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완강한 의지로 거듭되는 실패를 이겨내면서 강냉이튀기공정과 과자생산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고 내정실내체육장의 천정빛가림막을 자동적으로 여닫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금 현대적으로 일떠선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갖가지 강냉이가공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뜨거운 그 사랑 남새연구 및 생산기지는 길이 전해가리

우리는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어려있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았다.

모든 공정이 콤퓨터에 의해 자동조종되는 현대적인 수경온실들과 박막온실들이 아득히 펼쳐진 연구소는 마치 우리 인민이 머지 않아 누리게 될 보다 큰 행복을 소리쳐부르는것만 같았다.

첨단생물공학연구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최신식남새연구 및 생산기지인 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도마도와 고추, 오이를 비롯한 각종 남새들도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었다.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과 락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7월 이곳 연구소를 돌아보시면서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 하다고,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온실남새연구와 생산에서 시범단위, 모범단위이라고 커다란 만족속에 하시던 말씀이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어 무심히 걸음을 옮길수 없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가 끝간데없이 펼쳐진 온실바다에 어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써오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마련된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남새연구 및 생산기지입니다.》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남새연구 및 생산기지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새기면 새길수록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사랑의 씨앗을 묻으시며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눈물겹게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시려는 숭고한 뜻도 자리잡고있었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사랑에 떠받들려 남새과학연구소는 작물들에 물과 비료주기, 온습도보장 등 모든 작업공정들을 콤퓨터로 조종할수 있게 보다 훌륭히 개건될수 있었다.

남새과학연구소를 훌륭히 개건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도 여러가지 남새품종들을 새로 육성해내고 세계를 딛고 올라설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이곳 일군들과 과학연구집단을 높이 내세워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은 얼마나 은혜로운것이였던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나라의 남새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곳 남새과학연구소를 찾으시여 온실마다에서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는 먹음직스러운 열매남새들과 잎남새들을 바라보시며 인민의 기쁨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던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각종 남새의 생산성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이 땅에 피눈물의 대하가 흐르던 그 날날 맛좋고 영양가높은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념원을 꽃피우시려 연구소의 능력확장공사정형을 알아보시고 은정깊은 조치를 거듭 취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남새연구 및 생산기지로 훌륭히 전변될수 있었다.

세해전 9월 우리 원수님께서 능력확장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으시여 영양액공급실과 콤퓨터조종실, 생물공학실을 비롯한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첨단기술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남새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은데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몇가지 남새품종들의 생산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영양가높고 맛이 좋은 남새품종들을 많이 알고계시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실 때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심장마다에서는 뜨거움이 격랑쳤다.

장군님을 이렇게 능력확장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 모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절절히 말씀하실 때 일군들도, 과학자, 연구사들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안겨주시기 위해 기울이신 어버이장군님의 로고가 가슴뭉클 어려와 세찬 격정에 휩싸였다.

능력확장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온실들에서는 단순히 연구사업을 하고 운영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실지로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장군님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남새를 생산하게 하신것은 연구소가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주신 조치인데 장군님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거듭하여 강조하시였다.

누가 알았으랴.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 한평생 험한 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꽃피우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7월 또다시 연구소를 찾으실 줄을.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연구소의 온실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온실바다를 보는것만 같다고, 규모가 대단히 클뿐아니라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랑할만 한 기지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실 때 일군들은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뵈왔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연구소의 곳곳마다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며 온실남새생산을 늘일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온실남새생산을 늘이는것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여러곳에 꾸려놓은 남새온실들을 찾으시고 온실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일군들은 온실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수경온실에서 정보당 많은 량의 남새를 생산할수 있는 재배방법을 확립하여 온실마다에 풍성한 작황을 펼쳐놓은데 대한 이야기도 정깊게 들어주시고 온실남새생산을 늘이자면 좋은 품종의 종자들을 육종해내고 남새생산을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일군들의 안목도 넓혀주신 다심한 은정,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맛있고 영양가높은 다수확품종, 우량품종의 온실남새종자들을 새로 육종해내고 퍼치기 위한 사업, 세계적으로 이름난 남새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사업,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자애로운 그 손길,

숨막히는 무더위속에서 오랜 시간 연구소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유족한 식생활의 향유자로 되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절세위인의 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오늘도 인민들에게 사철 더 많은 남새를 안겨줄 불같은 결의밑에 남새연구 및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 있는것이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것인가를 심장깊이 새겨주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온실바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더욱 커만 가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연구소의 구내길을 걸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자랑하는 사회주의건설장들,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탐구의 열풍으로 끓어번지는 과학지구,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수산부문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격전장들과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지는 온실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걷고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인민의 아름다운 꿈은 나날이 이 땅우에 더욱 환희롭게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

본사기자 리금분

사계절 펼쳐지는 버섯풍경에도

온 나라가 버섯기르기로 들끓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흐뭇한 버섯수확풍경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끝없는 사랑의 길을 걷고 걸으시는 우리 원수님 이야기도 전하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102(2013)년 여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버섯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장전경도앞에서 훌륭히 꾸려진 버섯공장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를 재배실로 안내해드렸다.

재배실의 희한한 광경에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팔뚝만 한 흰곤봉버섯들이 하얗게 돋아나 척척 늘어져있었던것이다.

재배실안에서는 독특한 버섯냄새가 풍기고있었다.

터질듯 살이 오른 흰곤봉버섯들이 짬없이 가득가득 돋아난 희한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버섯공장에서 궁륭식버섯재배장과 건식공법으로 건설한 실내재배장을 배합하여 버섯을 생산하고있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시범으로 하여 군대와 사회에서 버섯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버섯공장을 찾으시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눈앞에 펼쳐진 버섯바다를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격정은 참으로 컸다.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그이의 헌신과 로고가 가슴뭉클 어려와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버섯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버섯공장들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건설하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버섯연구소를 세워주시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수 있는 튼튼한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를 마련해주시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여 능력이 큰 버섯공장들이 각 도마다에 훌륭히 일떠설수 있게 해주신 우리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은 얼마나 은혜로운것인가.

세상에는 오랜 버섯재배력사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고 버섯재배기술을 뽐내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버섯재배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내세우시고 버섯재배바람이 온 나라에 일어번지도록 깊이 마음쓰신 령도자는 없었다.

이 땅 어디서나 사계절 펼쳐지는 버섯풍경,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를 이 땅에 펼쳐진 버섯바다는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자욱을 심장깊이 새겨간다.
—유평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깊이 새겨주신 인민관

주체101(2012)년 4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하시는 그이의 말씀,

그것은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우리 당을 사람들의 운명도 미래도 따뜻이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고 일군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찬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할 불타는 결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사소한 문제도 놓치지 말라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기초식품공장에 꾸려진 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루된장이라고 쓴 제품앞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였다.

한동안 가루된장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리용방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공장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품에 사용방법을 써넣지 않았으니 어떻게 리용해야 하는지 잘 알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포장용기에 사용설명서를 꼭 써넣도록 할데 대하여 다심히 이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떤 사소한 문제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갈수록 더해만지는 사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신것은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는 우리 원수님,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그이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꽃피는 이 땅의 자랑찬 오늘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수 있겠는가.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대중봉사시설들이 일떠섰다고, 앞으로 인민을 위한 이런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행복을 위해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은 이렇듯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이 없다.

본사기자 정순학

금산포의 새 노래

로동당시대가 꽃피운 꿈같은 자랑들을 노래하며 서해바다는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예로부터 쇠돌이 많이 나는 고장에 있는 포구라 하여 그 이름도 금산포,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린 이곳에서 금산포의 새 노래가 들려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시대에 창조한 귀중한 재부와 창조물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됩니다.》

지난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해안의 중심어장에 위치한 능금도에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수산물가공기지를 일떠세울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장군님께서 수십년전에 벌써 오늘을 내다보시고 이런 명당자리를 마련해주신것만 같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금산포지구에 굽이친 력사의 나날들이 안겨왔다.

이 땅에 행복과 번영의 노래가 울려퍼지기 시작한것은 어느때부터였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금산포의 재부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밑천으로 된 그때부터였다.

금산포지구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청춘기를 맞이하였고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더불어 이곳에서 조국의 대지가 넓어지는 전설같은 현실도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변모된 금산포지구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또한번 크게 변하는 희한한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크나큰 격정을 안고 일군들은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이 붙어있는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또 하나 하자고,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자고 열정넘친 호소도 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는 그이의 말씀은 소연한 파도소리를 누르며 바다우에 울려퍼졌다.

언제인가도 건뎅이젓과 그 료리방법에 대하여 일군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같은 감을 가지고도 한가지라도 더 맛있게, 특색있게 해먹이려고 마음을 쓴다고 하시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좋은 젓갈품들을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우리 원수님,

하여 금산포지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고 열렬한 인민사랑의 이야기를 긍지높이 노래하게 되였다.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젓갈가공품을 마주하고 날로 커만 가는 식생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인민들은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번영하는 **김정은**시대에 태여난 금산포의 새 노래를.

본사기자 한영민

선군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에로 향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여오신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입니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엄혹한 시기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선군의 길에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세계를 향하여 파감히 돌진하는 장엄한 대진군의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6.15통일시대가 열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마련되게 된것도, 세계를 진감시킨 조미핵대결전에서의 련전련승도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만년재보로 틀어쥐시고 혁명과 건설을 장군님식으로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고계신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이 대를 이어 빛을 뿌리도록 하시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는 백두산대국의 높은 존엄과 승리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선군은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백승의 보검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힘의 대결이다.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는데 혁명의 승리가 있고 나라의 부강번영이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며 총대강화에 혁명승리의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이 투철한 신념을 안고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최대열점지역 섬방어대들과 관문점, 철령과 오성산의 최전연초소들을 찾고찾으시며 혁명무력강화에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은 천만군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고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들이 불패의 보루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게 된것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선군의 길에서 억세게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기에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선군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게 하는 최강의 무기이다.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2대기둥, 2대력량이다. 혁명의 주력군인 군대와 사회주의의 기초인 인민이 한덩어리가 된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무한대이다.

우리의 군민대단결은 천만군민이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룬 진정한 동지적단결이며 평범한 나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생사를 같이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최악의 역경도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겨냈고 21세기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군대와 인민사이에 뜨거운 정과 사랑이 흐르고 서로 극진히 위해주는 군민일치의 미풍이 수없이 꽃펴나고있으며 우리 혁명대오가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더욱 굳게 결속되고있다. 인민군장병들은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밑에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인민들은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혁명적풍모는 당의 선군혁명로선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발양될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무궁무진하다. 우리의 단결은 방대한 무력을 휘두르며 침략책동에 미쳐날뛰는 적들을 징벌하는 무자비한 철추이며 그 어떤 《제재결의》도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력한 무기이다. 물리적인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사수하려는 사상정신적힘, 우리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세계는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천결만결의 성새를 이루고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떤 기적을 낳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선군은 천만군민의 앙양된 정신력으로 조국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며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이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최대한으로 분출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강성국가건설이 앞당겨지게 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상론을 구현한 정치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이 폭발할 때 뚫지 못할 난관, 점령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정치신조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선군령도따라 불굴의 정신력으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기적을 창조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함이라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리는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오늘의 하루하루는 보통의 백날, 천날과도 대비할수 없는 격동의 나날로 수놓아지고있다. 인민군대가 창조한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우고 인민군군인들이 지닌 열렬한 애국심과 비상한 창조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많은 단위들이 자기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한 군민협동작전은 세기를 주름잡으며 폭풍처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처럼 강의한 정신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변혁을 이룩해나가는 군민은 없다.

선군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의 상징이며 이 땅우에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는 보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당의 선군혁명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것이다.

오수경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일본새

황주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황주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마지막 농작물비배관리를 이악하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장마철에 보조수원을 확보하여 관개수로 리용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어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한 조건에서도 논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에 맞게 방법론과 묘술을 부단히 탐구해나가야 한다.

군일군들은 조건이 불리할수록 무슨 일이든지 과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는데 성과의 담보가 있다고 보았다.

보조수원을 리용하여 흐름식물대기가 온을 내게 한 사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군일군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품을 넣은것은 주요논벼생산단위인 철도, 구포, 포남, 삼전, 청룡협동농장들에서 비물을 최대한 잡아 관개수로 리용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장마철이 지나면 온도가 낮에는 급격히 높아지고 밤에는 떨어져 논벼생육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칠수 있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비물을 잡아 태양열로 덥히고 땅속물도 함께 리용하면 논물온도는 얼마든지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분발하였다.

일군들은 먼저 농장별로 논면적을 타산하고 그에 맞게 비물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곳곳에 물주머니를 만들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농장들에서는 비물을 잡아쓰면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발벗고나서지 못하였다. 포전주변에 비물을 잡아둘만 한 적지가 없고 일정하게 떨어진 골에 물주머니를 만들자면 뚝쌓기와 물길을 새로 째는 등 품을 들여야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안도 그 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바로세우지 않고 내밀면 한갖 계획이나 호소로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사업을 어쩔수 없는 일로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문제로 본 군책임일군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즉시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뛰였다.

군책임일군이 철도협동농장 제4작업반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비물을 잡아 논물온도가 떨어지면 그물로 흐름식물대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함으로써 논벼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었다.

그는 포전을 돌아보며 오랜 농업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곳곳에 물주머니들을 만들고 비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좋은 방법과 경험들을 알게 되였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 일군들은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구상한데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먼저 물길과 골을 막아 물주머니들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를 타산하여 물길을 쉽게 막고 빨리 터칠수 있게 돌자루, 판자, 진흙 등을 리용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비물과 강물을 합쳐 관개수로 리용할 때 짠물이 포전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조직하였다. 일반적으로 짠물은 비물보다 무거워 아래층에 있다. 일군들은 이것을 타산하고 포전이나 양수장으로 흘러드는 물목의 바닥에 일정한 높이로 뚝을 쌓아 짠물이 흘러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수기의 흡입구도 높여 단물만 풀수 있게 하였다. 또한 품을 들여 물주머니들을 만들어야 할 대상들에는 군안의 사무원들을 총동원하여 뚝쌓기와 물길째기를 와닥닥 끝내도록 로력조직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논물온도가 낮아질 때에는 태양열에 덥혀진 비물로 흐름식물대기를 할수 있게 함으로써 논벼비배관리성과를 높이였다.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끈덕지게 달라붙어 혁신적인 방도들을 영농실천에 받아들여야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막혔던 고리도 풀고 비약의 지름길도 열어나갈수 있다.

고온현상으로 논물온도가 높아질수 있다는것을 타산하고 찬물을 확보하여 흐름식물대기를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할 때였다. 이때 일군들은 새로 우물과 졸짱수를 더 늘이지 않고 이미 있는것을 가지고 찬물원천을 더 많이 확보하여 흐름식물대기를 할 결심을 하였다. 로력과 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일감이 생겼다고 자꾸 일을 벌려만 놓으면 어느 하나도 성공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우선 이미 있는 우물과 졸짱을 더 깊이 파고 박도록 하였다. 이때 우물은 샘줄기가 터져나올수 있게 바닥을 암반이 나타날 때까지 파고 거기에 정대와 함마로 여러군데 구멍을 뚫어 물량을 늘이게 하였다. 그리고 우물과 졸짱의 바닥이 깊어지면 양수기의 가동률이 떨어질수 있다는 조건을 타산하여 풍력을 리용하여 물을 푸기 위한 묘안을 내놓고 실천하였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방법론과 묘술을 탐구하고 영농실천에 적용하면서 당면한 영농전투를 탄력있게 지휘하고 있는 군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정영철

기술일군들의 역할을 높이자

농작물생육후반기, 특히 마지막까지 비배관리를 잘하는 문제는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결정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현재 불리한 일기조건으로 하여 논벼이삭패기가 늦어졌다.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그만큼 정보당 알곡수확고는 감소되게 된다.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과학농사를 짜고들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기술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따라 올해 농사가 결정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우리 당은 기술일군들이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기술일군들은 이삭아지수가 결정된 조건에서 이삭패기를 앞당기고 천알무게를 최대로 늘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총집중해야 한다. 더우기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으로 포전마다 논벼생육상태가 다른것만큼 그에 맞게 옳은 처방을 내리고 과학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가을에 좋은 결실을 기대할수 있다.

전쟁의 형세를 역전시키는데서 작전일군들의 역할이 중요한것처럼 농업부문 기술일군들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다. 100가지 농사일을 과학기술공정으로 전환시켜 지난해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한 함경북도와 배천군의 농사경험은 기술일군들의 실력이자 곧 알곡생산실적이라는것을 뚜렷이 증명하였다. 올해에 몸을 대지 못한 박천군의 일부 포전의 논벼농사에서 성과를 내다볼수 있게 된것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술일군들의 높은 실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실천에 적극 구현하는 기술일군이 바로 우리 당이 요구하는 일군이다.

기술일군들은 과학농사의 기수,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 일군들부터가 폭넓고 깊은 지식의 소유자가 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특히 천연생물활성제를 비롯한 생육촉진제들을 하루빨리 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전투적으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장은 물론 작업반, 분조농사에서 걸린 기술적문제들을 농업근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

농장, 작업반실정을 잘 알고있는 사람은 바로 농장기술일군들이다. 농장기술일군들은 올해농사가 자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여기며 일해나가야 한다. 자기 지방의 기후조건과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며 생육을 촉진시키고 천알무게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반기술원들은 논물을 떼는 날까지, 가을걷이가 끝나는 날까지 과학농사를 책임지고 분초를 쪼개가며 뛰고 또 뛰여 포전마다 알찬 이삭이 달리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기술일군들은 열백밤을 패서라도 뜻깊은 10월의 대지에 풍요한 가을을 기어이 펼쳐놓고야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안고 일해나감으로써 조국과 인민앞에 자기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알곡증수의 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곽산군 원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낡은 경험을 고집하면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경향을 없애고 과학연구성과들을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정책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히 관철되고있는 단위마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조건타발이라는 말자체가 없는것이다.

풀우림액 즉 영양액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는 곽산군 원포협동농장 일군들의 일본새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농작물후반기비배관리에 들어서면서 일군들이 원심을 많이 쓴것은 비료문제였다. 이제 남은 알곡증수의 예비는 영양관리에 힘을 넣어 이삭이 잘 여물게 하여 천알무게를 늘이는데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비료가 부족하였다. 그렇다고 우에서 도와주기를 바라며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을수 없었다.

방도가 없겠는가.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자면 일군들이 과학농법도입의 적극적인 발기자,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관리위원장 김종수동무는 지난해 풀우림액으로 정보당 소출을 높인 일부 작업반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풀우림액을 만들어 일부 작업반들에 시험적으로 받아들이였다.

이 방법을 받아들인 작업반들에서는 풀우림액으로 정보당 소출을 600~700kg이나 더 높이였다.

그 방법을 보면 풀 1t에 일정한 량의 닭배설물과 재, 발효균, 쌀겨, 류산아연 등을 섞어 탕크에 다져넣은 다음 박막을 덮어 며칠간 발효시켰다.

그리고 물을 1t정도 채우고 하루종일 우려내였다.

이 우림액을 3~5배의 물에 타서 정보당 300~500L를 잎덧비료로 주면 풀에 있는 영양물질이 잎에 직접 분무되므로 3일만에 잎색갈이 뚜렷하게 달라진다.

좋은점은 이뿐만이 아니였다. 뿌리활성과 함께 수정률도 높일수 있었다.

그는 즉시 풀우림액을 모든 작업반들에 받아들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우선 모든 농장원들이 풀우림액의 우월성을 확고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풀우림액에 대한 농장원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이 방법을 받아들이려는 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풀우림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관리위원장은 한개 농장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들의 임무는 작전이나 하고 아래에 포치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류산아연을 비롯한 원료확보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또한 생산조건과 물보장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에 맞게 풀우림액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작업반기술원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고 보여주기사업도 실속있게 조직함으로써 농장원들이 기술규정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였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많은 풀우림액이 만들어지게 되였다.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원리적인 문제들을 알기 쉽게 알려주어 그들이 이 사업에 애국의 땀을 바치도록 하였다. 결국 농장에서는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우림액을 만들어 농작물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하고있는 이 농장 일군들의 완강한 실천력에 의하여 올해농사의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김강철

이틀 앞당겨 끝낸 비결

맹산군 장동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맹산군 장동협동농장의 포전들은 대체로 토심이 얕아 농작물생육에 불리하다. 그런데다 올해의 지속되는 가물로 하여 강냉이들의 전반기생육이 일정하게 지장을 받았다. 자칫하면 그 후과가 후반기생육에로 이어져 정보당 수확고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결코 불리한 자연조건과 난관앞에 맥을 놓고 주저앉지 않았다.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는 관점에서 모두가 천알무게를 높이기 위해 지혜를 합쳤다.

강냉이오사리벗겨주기가 주목되였다. 지난해 강냉이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일부 단위들을 찾아가 그 비결을 알아본데 의하면 이 방법도 매우 효과적이였다. 이 단위들에서는 강냉이수확을 보름정도 앞둔 시기에 오사리를 이삭의 1/3정도되게 벗겨주었다. 결과 천알무게가 높아진것은 물론 여물기도 촉진되여 강냉이수확시기를 한주일정도 앞당길수 있었다고 한다.

농장에서는 이런 좋은 영농방법을 찾은데 그치지 않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오사리벗겨주기가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인것만큼 담당한 포전별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하지만 그들과 견해를 달리한 농장일군이 이에 대해 명백히 선을 세웠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작업의 질은 보장될수 있다. 그러나 이 작업도 시기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인것만큼 분조의 단합된 력량으로 와닥닥 해제껴야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

이것은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의 진수를 파악하고 내린 승산이 확고한 결심이였다.

이렇게 되여 강냉이오사리벗겨주기를 분조단위로 해제끼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였다.

결과 많은 품을 들이면서도 한주일이상은 걸려야 한다던 작업을 이틀 앞당겨 닷새만에 결속할수 있었다.

이틀이라는 차이에서 일군들은 이런 경험을 찾았다.

앞선 영농방법도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갈 때 알곡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성일

◎과학축산의 보람◎

축산에서 수의방역사업은 생명과 같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삭주군 읍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는 방역이자 증산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한 수의방역체계를 세워놓고 새끼토끼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갔다.

무리별에방접종과 검역사업을 구체적인 계획밑에 진행하였으며 우리소독과 주변위생환경도 방역학적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갔다. 또한 작업반원들이 호동 및 먹이가공실출입규정, 토끼사양관리에 리용하는 공구들의 소독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수의방역과 관련한 문제를 어느 한가지도 놓치지 않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할수 있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나간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많은 새끼토끼를 생산하여 농장원세대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

뜻깊은 올해에도 더 높은 새끼토끼생산목표를 세운 작업반에서는 마리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수의방역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의방역이자 생산이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토끼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는 작업반원들은 항상 이것을 명심하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과학축산에 품을 들이고있는 이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돋보이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대중체육이 활발히 벌어지게 된 사연

국가계획위원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체육사업을 중시하고 당의 체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 나서며 대중체육활동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부터 2월사이에 진행된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의 조별종합순위에서 국가계획위원회는 영예의 제1위를 하였다.

그 단위를 찾았던 우리는 호기심이 부쩍 동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승에로 이끈 1번수가 다름아닌 초급당일군들이라는것이였다.

《그것을 알자면 우리 위원회에 탁구열풍이 일던 이야기부터 들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국장 최룡길동무는 이렇게 허두를 뗐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던 지난해 이곳 초급당위원회에서도 대중체육에 큰 힘을 넣었다.

일군들이 정무원들속에 들어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한편으로는 대중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기 위한 조건보장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초급당일군들은 위원회일군들과 마주앉아 누구나 대중체육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체육기자재를 마련하고 탁구장, 배구장을 꾸리는 문제를 놓고 토론도 진행하였으며 제일 걸린 문제는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조건이 보장되였다고 하여 대중체육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조건보장사업이 선행되는데 맞게 직맹조직을 발동하여 대중체육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도록 이끌었다. 결과 체육을 정상화하는 사람들이 와짝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날 초급당비서 오지현동무는 체육활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였다. 취미본위나 선수본위로 체육경기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던것이다.

일부 정무원들은 일이 바쁜데 그런데까지 시간을 돌릴 여유가 없다면서 체육사업을 소홀히 하고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초급당비서는 자책되는바가 컸다. 당정책관철에서는 사소한 에누리도 허용될수 없다고 생각한 초급당비서는 대중체육활동을 더 활기있게 벌리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우선 탁구바람부터 일으키리라 결심하였다. 출장을 비롯한 개별적행동이 많은 정무원들의 사업조건을 고려해서였다.

초급당비서자신이 앞장에 섰다. 사업이 바쁜 속에서 탁구훈련시간을 짜내느라 그는 자기에게 차례지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마저 또 잘라냈다. 점심시간과 퇴근후의 일과도 새로 생겨났다.

여러가지 수법을 련마하기 위해 초급당비서는 훈련대상도 여러명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많은 땀을 흘리였다.

예순이 다된 그가 하루도 빈지 않고 탁구훈련을 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것을 자각하였기에 그는 스스로 정한 훈련시간을 지켰고 훈련강도도 높이였다.

정열은 곧 성공의 어머니였다. 짧은 기간에 그의 탁구기술이 남들이 놀랄만큼 발전한것이다.

이렇게 습득한 그의 탁구기술이 위원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선수라고 뽐내던 사람들까지도 그와 마주서서는 탁구공을 받느라 땀을 뻘뻘 흘리였다.

무회전과 하회전에 의한 처넣기, 재치있는 공격으로 결속을 짓는 등 초급당비서가 특기동작을 펼칠 때마다 정무원들은 연방 감탄하였다.

의도적으로 이런 자리를 여러번 마련한 초급당비서는 경기가 끝날 때마다 정무원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체육이 곧 우리자신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이다. 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수 있다.

체육이라면 아예 두손 들고 외면해버리군 하던 일부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속이 뜨끔해났다. 초급당비서의 잡도리가 간단치 않다는것을 직감한것이였다. 그들은 분발하리라 결심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련이어 국장급이상 일군들로 탁구경기를 조직하였다. 직맹조직에서는 기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실정에 맞게 세 부류로 나누어 대전표를 짰다.

국장급이상 일군들의 탁구경기가 곧 진행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무원들은 은근히 그 시간을 기다렸다. 바빠난것은 체육에 무관심하던 일부 국장들이였다.

이화들이 생겨났다. 남의 탁구채를 빌려가지고 훈련하던 일부 국장들이 좋은 탁구채를 구하기 위해 저녁늦게까지 뛰여다녔다는 이야기,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탁구훈련을 하였다는 이야기, 휴식날마다 자식들에게서 탁구훈련지도를 받았다는 이야기…

정무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탁구경기가 시작되자 온 위원회가 들썩이였다.

자기 단위 책임자가 좋은 성과를 기록하며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그 단위는 명절처럼 끓었고 그렇지 못한 단위 정무원들의 얼굴색은 밝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국장급이상 일군들의 승벽심은 점점 높아졌다.

국장 김정섭, 우성남동무와 같이 탁구에 관심이 적던 일군들이 이제는 탁구선수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체육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것을 대뜸 짐작할수 있다.

이 탁구경기가 위원회의 체육열풍을 일으키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성과가 클수록 김영성, 김철수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직맹조직과의 련계밑에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체육활동을 더 실속있게 벌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위원회안에 곧 배구열풍이 일었다. 정무원들의 승벽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롱구, 건강태권도,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체육경기들도 다채롭게 조직되고 그 열기가 높아졌다.

정무원들은 명절날, 휴식날은 물론 짬시간을 리용하여 너도나도 경기장에 뛰여들었다. 체육과 담을 쌓았던 사람들까지도 체육선수로 등장하였다. 위원회의 작은 운동장이 체육선수들을 낳는 《체육판》으로 전환된셈이다.

올해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에서 위원회가 우승할수 있은것도 대중체육열풍에 비결이 있다. 초급당비서, 부비서가 앞장에서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에 참가하여 좋은 실적을 냈으며 선수로 선발된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평상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시간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바로 체육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이 문제였습니다. 그 관점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초급당비서동지가 체육선수로 된것입니다.》

우리와 헤여지며 한 국장의 이 말 한마디가 남긴 여운은 참으로 컸다.

여기서 찾게 되는 결론이 있다.

이 단위 당일군들처럼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대중체육사업은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일터에 군자리정신이 나래칠 때

강동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기다릴것인가 내밀것인가. 막장을 돌아보는 초급당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모든것이 원만히 갖추어진 조건에서 일판을 벌리는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전기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석탄생산을 계획대로 내민다는것은 결코 조련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앉아 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다졌던 맹세, 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도 매달 석탄생산계획을 기어이 넘쳐 수행하리라는 그 맹세가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인민대중의 정신력의 분출입니다.》

협의회장에는 팽팽한 공기가 맴돌았다. 누구도 선뜻 방도를 내놓지 못하였다. 전기사정이 그때처럼 긴장해본적이 없었던것이다.

일부 일군들이 손맥을 놓고있는것이 우연하지 않았다. 전기가 올 때마다 와닥닥 일을 제끼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때 초급당일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대와 함마를 리용해서라도 굴진을 해야 합니다. 전화의 나날 전기가 오지 않으면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기관단총을 만들던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거울로 삼읍시다.》

높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참가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항일의 전구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의 계승인 군자리정신, 결사의 투지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여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들이였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간에 달라졌다. 신심과 락관에 넘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울려나왔다.

이어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당, 행정일군들이 막장에 들어가 한개 단위씩 맡아 정치사업도 하면서 이신작칙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전기가 오지 않는 조건에서도 작업할수 있는 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할데 대한 과업은 채굴공정과장에게 맡겨졌고 함마와 정대를 지체없이 보장할데 대한 과업은 설비과장에게 맡겨졌다.

협의회장의 앙양된 열의는 막장들에 퍼져갔다. 탄부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인양 함마소리가 세차게 울려퍼지기 시작하였다.

함마와 정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암반을 조겨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억센 의지가 비껴있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군자리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한 막장에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때 다른 막장에서는 탄부들의 읽은책 발표모임이 진행되였다.

일터마다에서 신문독보와 해설담화, 이야기모임 등이 격식없이 벌어졌다.

작업장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며 24시간 교대없이 일한 이야기, 밥먹는 시간도 아까와 한쪽주머니엔 통강냉이알을, 다른 주머니엔 소금을 넣고 씹으며 포신을 깎은 이야기, 희생된 동지의 몸에 박혔던 파편을 앞에 놓고 복수를 부르짖으며 총신을 깎은 선반공에 대한 이야기…

군자리로동계급의 생동한 투쟁자료들을 가지고 일군들이 진행한 정치사업들은 막장들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탄부들은 자기들이 캐낸 석탄산의 높이이자 심장속에 간직된 군자리정신의 높이라고 하면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그들은 막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혁신을 일으켰다.

갱별,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석탄생산성과가 날마다 확대되였다.

군자리로동계급의 넋을 이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실천적성과로 받들어가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비상한 정신력에 의하여 그처럼 어렵다고 하던 그달 석탄생산계획도 훨씬 넘쳐 수행되게 되였다.

일터에 군자리정신이 나래칠 때 불가능이란 없다.

이것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찾은 경험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야전형의 지휘관이 되여야 비약의 지름길을 열수 있다

문덕수산사업소 지배인 로력영웅 림덕화동무의 사업에서

문덕수산사업소는 해마다 말겨진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지난 10여년간 선군봉화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우승기를 단 한번도 양보하지 않은 단위이다.

크지 않은 이 단위가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치여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고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서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가운데서 단연 앞장에 서고있다.

자체의 힘으로 《단풍》호계렬의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척척 무어내고 어구들을 현대화하여 사업소가 생겨 처음보는 기록적인 어획고를 련속 돌파하고있으며 소문없이 물고기가공품생산기지도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다.

당의 사상이 그대로 맥박치고 당정책이 속속 관철되여 뚜렷한 성과를 낳고있는 사업소의 현실은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의 정당성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총궐기, 총발동시키는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여야 합니다.》

지난 15년간 문덕수산사업소 지배인으로 사업하여온 로력영웅 림덕화동무는 60고개를 바라보는 일군이다. 그러나 오늘도 왕성한 패기와 정열에 넘쳐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하고 완강하게 실천해가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누구나 제1선참호에 선 화선지휘관이라고 부르고있다.

인민군대의 모범을 본받아 온 나라에 수산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접하고 년간 1만t의 비약적인 물고기잡이목표를 내세우고 앞장에서 결사관철한 지배인의 투철한 사상적각오와 능숙한 조직적수완, 혁신적인 일본새는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일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천백배의 힘을 낳는 결사의 각오

지난해 1월초, 년간 1만t의 물고기잡이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놓고 협의회가 열렸을 때였다. 해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서해지구 수산사업소들중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군 하였지만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고 사업소의 최고생산년도실적에 비해서도 2배이상이나 되는 1만t의 물고기잡이목표를 내세운것만큼 협의회참가자들은 저으기 긴장되여있었다.

그러나 협의회를 시작하면서 뗀 지배인의 말은 확신에 넘쳐있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난해에 어떤 기적을 창조하였는가. 당에서는 사회의 수산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있는 원인이 조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당정책을 대하는 사상관점에서의 차이, 투쟁기풍에서의 차이에 있다고 명백히 밝혀주었다. 당의 뜻대로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자면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력부터 본받아야 한다. 우리 일군들부터가 물고기잡이전투를 사회주의수호전으로 여기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달라붙자.

협의회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비상한 각오를 만장약시켰고 종전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대담한 목표들을 결정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단풍》호고기배들처럼 바다를 종횡무진하며 물고기를 퍼올릴수 있는 만능어선들을 자체의 힘으로 무어내자는것이였다.

지배인은 사업소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만능어선을 무어내는 과정을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정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해마다 여러척의 고기배들을 무어냈지만 전문선박공장들에서나 건조할수 있는 덩지큰 고기배를 사업소자체로 뭇는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바로 할수 없다는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백배하게 하고 결사의 각오만 있으면 기적도 창조한다는 진리를 대중의 심장속에 더욱 굳게 자리잡게 할 결심밑에 앞채를 메고 뛰였다.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만능어선의 설계안이 완성되고 철판과 필요한 자재들이 하나하나 확보되여 드디여 배무이전투가 시작되자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이 갖추고있는 《단풍》호계렬의 고기배를 제힘으로, 그것도 한해에 두척씩이나 뭇는다는것을 알게 된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떨쳐나와 배무이현장을 떠날줄 몰랐다.

목선을 건조하던 배올림대우에 어마어마한 철선의 골조가 세워지고 쉼없이 날리는 용접불보라속에 덩지큰 고기배의 형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자 사업소의 분위기는 대번에 앙양되였다.

여기에 맞게 지배인은 초급당조직과의 협의밑에 매 선단과 고기배, 직장과 작업반별로 년간전투목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온 사업소의 종업원들과 가족들까지 당정책옹위전에 총궐기시키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고기배별물고기잡이목표가 2배이상으로 높아진것만큼 출어일수를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배수리기일을 단축해야 했고 지난 시기의 어로전투를 통해 그 우월성이 확증된 두릉그물과 무활개그물을 모든 고기배들에 받아들이자면 짧은 기간에 종전의 몇배나 되는 그물을 꾸며야 했다.

그러나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대중은 백배, 천배의 힘을 낳았다. 배수리전투장도 그물뜨기작업현장도 격전장으로 화했고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현장을 뜨지 않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들이대였다.

이렇게 하여 사업소에서는 지난해에 례년에 비해 20일이나 앞당겨 바다에 진출하여 봄철물고기잡이에서부터 통장훈을 불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기념일인 6월 13일까지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년말까지 1만t의 물고기잡이목표에 승리의 기발을 꽂았다.

여기서 새로 무어낸 《단풍》호계렬 만능어선들이 큰 몫을 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가 승리의 근본열쇠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이런 투철한 각오가 있기에 사업소에서는 올해에도 또 한척의 현대적인 고기배를 무어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를 만능어선으로 만들었으며 서해의 봄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 다시금 승리의 통장훈을 불렀다.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유능한 작전가, 솜씨있는 지휘관의 특기는 무슨 일이든지 과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는데 있다.

어황조건이 끊임없이 변하고 예측할수 없는 정황이 수시로 제기되군 하는 조건에서도 해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문덕수산사업소의 성과의 밑바탕에는 어로전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지배인의 확고한 관점과 혁신적인 일본새가 깔려있다.

10여년전 거의나 주저앉다싶이한 사업소를 인계받아 지배인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림덕화동무는 자체로 고기배를 무어내여 사업소의 물질적토대를 쌓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어로체계와 어로방법을 확립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소의 물고기잡이방법은 수십년전에 비해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변경으로 어황조건이 적지 않게 달라졌지만 배에 갖추어진 설비들과 어구들도 종래의것과 별로 차이가 없었고 어기에 따르는 어로방법도 그대로였다.

림덕화동무는 수산업은 결코 투기업이 아니며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일판을 벌려나갈 때 얼마든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낼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오늘날 사업소안의 모든 고기배들에 물온도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수 있는 설비와 현대적인 어군탐지기들이 설치되고 어장탐색과 어황예보, 생산지휘의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게 된것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지배인의 확고한 견해와 완강한 전개력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수산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는 사업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전개하고 일군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때에만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림덕화동무는 사업소안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첫 사업으로 단번에 70여명의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대학교육을 받게 하였다. 알아야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설수 있다는 확고한 주견과 배심을 가지고 취한 조치였다.

과학화, 현대화의 기치도 일군들이 먼저 추켜들어야 한다는 립장에서 지배인은 자신이 직접 고기배를 타고나가 어로공들과 함께 물고기잡이전투를 진행하면서 어황조건이 달라진데 맞게 어로방법을 개선하고 어구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지하게 하였다.

지난 기간 그가 창안한 《무활개안강망》과 《75hp 목조안강망선의 능력개선》 등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되여 국가발명증서를 비롯한 과학기술증서들을 수여받았다.

그 과정에 사업소안에 대중적기술혁신열풍이 세차게 몰아쳐 13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현실에 도입되고 두릉안강망과 무활개안강망을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그물들이 사업소의 모든 고기배들은 물론이고 서해안의 수산사업소들에 적극 일반화되게 되였다.

고기배들만 현대화된것이 아니다.

150여m의 부두공사를 진행하여 한척의 운반선박에 계류하지 못하던것이 단번에 3척의 운반선을 대고 물고기하륙작업을 원만히 할수 있게 되였다. 주물작업장을 비롯한 공무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벼겨가스화에 의한 발전발동기, 이동식산소, 수소발생기 등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그쯘히 갖추어져 현대적인 고기배도 마음만 먹으면 제힘으로 무어내고있다.

언제나 당정책에서 일거리를 찾아쥐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며 창발적으로 일판을 전개하는것이 지배인 림덕화동무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이다.

몇해전 어분사료공장건설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였다.

사업소가 바다가에 위치하고있다나니 면적이 천수백㎡나 되는 공장을 앉힐만 한 자리가 신통치 않았다. 부지도 문제였지만 수산사업소야 물고기나 잡으면 그만이지 어분공장까지 우리 힘으로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의견이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돌았다.

그때 지배인은 축산과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라는것은 당정책이고 어분은 축산과 양어에 필수적인 사료이다, 우리가 어분사료공장을 일떠세우면 그만큼 당정책관철에 이바지하게 되고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된다고 진지하게 설득시켰다.

며칠후 사업소가 끼고있는 간석지에 제방을 쌓고 부지를 확장하여 어분사료공장을 건설할것을 예견한 전망도가 나붙자 많은 사람들이 지배인의 일욕심에 혀를 찼다.

그러나 지배인이 간석지를 막아 부지를 얻어내는데 드는 물동량과 로력까지 꼼꼼히 타산해보며 사색을 거듭한 끝에 이런 결심을 내렸다는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다.

이렇게 되여 바다가 한끝에 자리잡은 사업소에 5천㎡의 번듯한 공지가 생겨나고 단 석달만에 현대적인 어분사료공장이 일떠서 생산을 시작하는 또 하나의 전변이 일어났다.

대중은 진정을 바치는 일군을 따른다

인민군대에서 지휘관들을 맏형과 맏누이로 존경하며 따르듯이 대중이 일군들을 친부모나 형제처럼 친근하게 여기고 집단이 한식솔이 될 때 사업에서의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지배인 림덕화동무는 늘 아래 일군들에게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은 진정과 헌신에 있다고 이야기하군 한다.

어느해인가 사업소가 생겨 수십년만에 새로운 수도화공사가 벌어지게 된 사실을 놓고보자. 사업소가 바다가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종업원들이 수질이 나쁜 물때문에 애를 먹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배인은 새로운 수도화공사를 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막상 수질이 좋은 물원천을 찾아놓고보니 관을 늘여야 할 길이가 무려 8천 수백m나 되였다.

크지 않은 수산사업소에서 이만한 관은 결코 적은 자재가 아니였고 공사에 드는 로력도 문제였다. 일부 일군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사업소의 형편이 좀더 펴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비치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종업원들이 물고생을 하는것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어디에 있는가고 하며 자신이 앞장에서 뛰여다니며 자재를 해결해왔고 사업소의 력량을 총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와닥닥 해제끼였다.

여러해가 지난 오늘까지도 종업원들과 가족들이 지배인소리만 나오면 수도물이야기부터 꺼내군 하는것은 바로 이 하나의 사실에 종업원들을 위하는 일군의 진정이 비껴있기때문이다.

사업소구내에는 비록 크지는 않아도 웅근 하나의 목장을 방불케 하는 아담한 축산기지가 있다.

사업소일군들이 축산기지를 꾸리고 실리가 나게 운영하는데 얼마나 뼈심을 들였는가 하는것은 불과 10명의 가정부인로력으로 해마다 여기에서 200마리의 돼지와 2천 수백마리의 닭을 길러내고 5만개이상의 닭알을 생산하여 종업원들의 후방공급사업에 크게 한몫하고있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온실과 버섯생산기지에서는 갖가지 남새와 버섯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여 바다에 나간 어로공들에게 전진공급되고있다.

사업소구내에 번듯하게 일떠선 문화회관과 2층짜리 종합편의봉사시설에서는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고 새로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야심만만한 리상과 포부를 안은 황금해력사의 주인공들이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인민을 위해 일군이 있고 사업소도 존재한다는 지배인의 투철한 인민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세부가 있다.

지난 7월초, 사업소에서는 봄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 잡은 까나리를 평성시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성껏 가공하여 비닐봉지로 하나하나 포장하였다.

그런데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 일군들이 상품을 접수할 생각만 앞세우면서 운반용기를 따로 준비하지 않은채 대형자동차들을 끌고 사업소에 도착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배인은 그들에게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말린 물고기들을 봉지채로 대형자동차들에 싣는다면 먼길을 가면서 부스러지겠는데 그것을 받을 인민들을 생각해보았습니까? 일군이라면 마땅히 비록 크지 않은 상품 하나에도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비끼게 된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날 지배인은 밤이 퍽 깊은 때였지만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말린 물고기가 손상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반될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고서야 차를 떠나보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물고기가공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물고기가공품들을 먹이시려고 곳곳에 현대적인 물고기가공품공장들을 일떠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배인이 발기하고 벌려놓은 일판이다.

이제 여기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포장된 갖가지 물고기가공품들이 쏟아져나오게 된다고 종업원들은 벌써부터 성수가 나서 걸싸게 일을 제끼고있다.

＊　＊

문덕수산사업소 지배인 림덕화동무의 사업경험은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야전형의 일군이 되여 대중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킬 때 어디서나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진수

돌격구령을 대신하는 이신작칙

동신군 석포협동농장에서

동신군 석포협동농장에서 풀베기전투가 시작되여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늘 남보다 먼저 전투좌지를 차지하던 농장일군이 그날은 일이 있어 좀 늦게 작업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한 농장원의 이야기가 뜻밖이였다.

《오늘부터는 나오지 않는가했습니다. 그동안 앞장에서 땀인들 좀 적게 흘렸습니까. 그러니 인젠…》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것이였다.

사실 그날도 일군은 작업장에 농장원들보다 빨리 도착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풀베기전투분위기가 고조되였다고 안심하면서 하루일이 끝난 다음에 처리할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돌아다니다나니 늦어진것이였다.

그날 농장일군은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의 이신작칙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았다. 여기에는 일군들이 언제나 들끓는 현장에서 몇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감화력과 호소력을 가진 가식없는 실천행동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그들을 위훈과 혁신창조에로 이끌어나갈것을 바라는 당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군중이 지켜본다. 언제나 농장원들과 함께 손발에 흙을 묻히면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일본새와 이신작칙만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대신할수 있다. 이것이 그날 자신을 채찍질하며 농장일군이 찾은 귀중한 교훈이였다.

그후 그는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면서 자기의 전투좌지를 변함없이 지켜나갔다. 뿐만아니라 농장의 모든 초급지휘성원들이 언제나 당의 뜻대로 꾸밈과 가식이 없는 실천적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이런 그들의 남다른 일본새는 농장원들의 거울이 되였고 힘있는 돌격구령을 대신하였다.

누구나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하게 들어설 불같은 마음안고 힘든줄 모르고 일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계획된 풀베기량의 80%계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사기자

조일 두 나라 체육대학팀사이의 축구경기 진행

조선체육대학팀과 일본체육대학팀사이의 남, 녀축구경기들이 3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영훈체육상, 박근팡 조일우호친선협회 회장, 신동규 조선체육대학 학장, 관계부문 일군들, 축구전문가, 애호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기들을 관람하였다.

마쯔나미 겡시로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 성원들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함께 보았다.

두 나라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자 관중들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기들은 자기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하여 시작부터 멋있는 장면들을 펼쳐보이며 박력있게 진행되였다.

재치있는 속도빼몰기와 공빼앗기, 높은 결합능력에 의한 조직적인 공격과 불의적인 역습속공으로 이어지는 치렬한 공방전은 관람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선수들이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축구기술과 집단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통쾌한 득점을 성공시킬 때마다 관람자들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이날 남, 녀축구경기들에서 조선체육대학팀은 일본체육대학팀을 2:1, 4:0으로 각각 이겼다.

조일 두 나라 체육대학사이의 학술 및 체육교류에 관한 협정 조인

조선체육대학과 일본체육대학사이의 학술 및 체육교류에 관한 협정이 30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마철수 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 조선체육대학 일군들과 마쯔나미 겡시로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신동규 조선체육대학 학장과 다니가마 료쇼 일본체육대학 학장이 협정문에 수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9월중 지자기현상

9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2일(3시-5시)
7일(8시-10시)
10일(17시-19시)
18일(2시-4시)
21일(5시-7시)
22일(8시-10시)
26일(10시-12시)
30일(23시-24시)

청진지방

1일(13시-15시)
5일(5시-7시)
7일(15시-17시)
11일(10시-12시)
17일(1시-3시)
20일(3시-5시)
21일(5시-7시)
28일(5시-7시)

해양국의 주인들로 튼튼히 준비해간다

수영장에 넘치는 랑만

남포시 천리마구역 새거리고급중학교에서

해양체육월간에 남포시 천리마구역 새거리고급중학교에서도 수영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이 많기때문에 누구나 다 수영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에도 학교수영장은 학생들의 수영열의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이미 배운 능숙한 수영솜씨를 뽐내며 기세좋게 푸른 물을 헤가르는 학생들,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동작을 착실히 하는 학생들, 그런가 하면 소개판에 제시된 여러가지 수영동작원리들과 해양체육상식과 관련한 자료들을 보느라 여념이 없는 학생들도 있었다. 색갈고운 타일들을 잘 붙여놓아 한결 산뜻해보이는 수영장이 학생들의 배움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었다.

교장 김성준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학교수영장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쇠바줄직장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올해에 훌륭히 개건되였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매일같이 수영을 하는 학생들이 수영장을 노래하는 시작품들도 여러편 지었습니다.》

너도야 첨벙 나도야 첨벙 수영장엔 웃음소리 가득 넘친다는 시, 학교의 수영장은 크지 않아도 온 나라가 다 아는 수영명수로 자랄 우리의 마음 여기서 날을 따라 커진다는 시도 창작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장은 교직원들의 수영열의도 최근에 대단히 높아졌다고 자랑하였다.

학교수영장에서 또 얼마나 많은 자랑들이 꽃펴날것인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성근

해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강원도청년동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들에서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학생들속에서 수영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할뿐아니라 어려서부터 헤염을 잘 치고 바다와 강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해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해양체육월간에 도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수영을 비롯한 해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도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소년단조직들에서 청소년학생들속에 수영을 비롯한 해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당정책을 깊이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다양한 정치사업을 벌려 해양체육월간 분위기조성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도에서는 해양체육월간에 수영경기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원산시에서 해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훌륭히 꾸려진 송도원해수욕장에서 수영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원산시 영웅해안고급중학교와 석우고급중학교, 봉수초급중학교와 해안소학교를 비롯한 시의 학교들에서 교원들부터가 높은 수영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문천시와 통천군을 비롯한 바다를 낀 시, 군들의 학교들에서 수영경기를 자주 조직하고 수영소조도 활발히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을 건강한 체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준비시키고 있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회양군과 판교군, 금강군을 비롯한 도의 학교들에서도 실정에 맞게 수영장을 잘 꾸려놓고 해양체육을 적극 장려하여 학생들에게 용감성과 인내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고있다.

해양체육월간에 도의 청소년학생들은 수영뿐아니라 수기신호법 등도 하나하나 익혀 건강한 체력과 굳센 의지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는 믿음직한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수영기초훈련에 열중하고있는 원산시 해안소학교 학생들
—송도원해수욕장에서—

강과 바다의 정복자로

순천시에서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순천시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수영을 비롯한 해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것만큼 청소년들이 누구나 헤염을 칠줄 알아야 하며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가 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지난 시기 수영장꾸리기와 수영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모범을 보여준 순천시 부산고급중학교의 경험을 시안의 모든 학교들에 일반화하는것과 함께 청소년학생들이 올해의 해양체육월간에 수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강을 끼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실내 및 야외수영장을 잘 꾸리도록 하였으며 강을 끼고있는 학교들에서는 강기슭에 일정한 구역을 선정하여 야외수영장을 실정에 맞게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시안의 모든 학교들에서 6월말까지 수영장운영준비를 빈틈없이 끝내고 7, 8월해양체육월간에 학생들의 수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짜고들도록 하였다.

이 사업에서 체육교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성을 높여 학생들에게 수영기초기술을 알심있게 배워주게 하고있다.

순천시 부산고급중학교뿐아니라 서문소학교, 강안초급중학교, 룡봉고급중학교 등 많은 학교들의 수영장들은 날마다 학생들의 드높은 수영열의로 끓어번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얼마전 순천시에서는 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의 수영경기가 있었다.

고급중학교, 초급중학교, 소학교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된 경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수영기술과 집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해마다 그러했지만 올해의 수영경기에서도 고급중학교학생들의 대동강도하경기가 절정을 이루었다. 다양한 수영방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거세찬 물결을 헤가르며 기세좋게 대동강을 도하하는 학생들의 씩씩한 모습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하였다.

시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당정책의 요구대로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과 바다의 정복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철호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질풍쳐가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 지원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대원들,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발전소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1호발전소언제우에 휘틀조립과 해체를 위한 기중기 설치, 2개의 골재원천지 확보와 10여대의 혼합기 신설가동, 언제콩크리트타입에 3개 려단력량 증강배치…

지휘부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치밀하고도 기동적인 지휘에 따라 백두청춘들은 언제전 구간에서 콩크리트타입전투를 립체적으로 맹렬히 벌려 올해 4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지난 시기 한해평균콩크리트타입량의 5.5배와 맞먹는 량의 언제콩크리트타입을 하였다. 그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1호발전소언제는 4개월 남짓한 사이에 수십m나 더 높이 솟구쳐올랐다.

지난 27일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드디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완공의 관건적대상인 1호발전소언제콩크리트타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조선청년들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뜨거운 호소와 하늘같은 믿음에 접한 그때부터 백두전역은 말그대로 거대한 불도가니로 변하였다.

모든 려단, 모든 단위들이 정연한 공격서렬을 짓고 높이 세운 목표를 향해 파감히 노도치는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치솟아오른 언제 한치한치와 끝없이 뻗어간 물길굴 한m한m를 위해 백두청춘들이 바친 애국충정은 참으로 열렬하고 지극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가 되려는 일념안고 평양시려단 방철민, 고현민, 남포시대대 김광복, 한성룡, 평안북도려단 대대장 김명성동무를 비롯한 모든 청년돌격대지휘관, 대원들은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기적과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며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긴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제11려단 처녀굴착기운전공들인 전옥심, 류성숙, 전금향동무들과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김옥금,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황은심, 성, 중앙기관대대 장은혜, 장충실, 장보탑세쌍둥이자매와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황해남도려단 최룡순, 최일순, 최꽃순세쌍둥이자매, 평양시려단 박정금, 남포시대대 김은희, 오선애, 박금희동무를 비롯한 백두전역의 처녀돌격대원들은 맡은 일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건설장의 꽃, 처녀혁신자로 자랑떨치고있다.

눈부신 기적과 혁신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평안남도려단 방정수, 평양시려단 김명학, 량강도려단 김은정,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김만일동무들처럼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세멘트를 비롯한 귀중한 자재와 설비들을 눈동자처럼 여기고 아끼며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깐진 살림군들을 어느 단위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평양시려단 윤정심, 윤정녀자매, 평안남도려단 신승복, 김영순,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황해북도려단 백명숙, 함흥산업건설사업소 정광훈, 김경선, 황현호, 신명진,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 곽광수동무를 비롯한 많은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언제나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돕고 위해주는 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지난 7월초 황해남도려단의 김순정동무는 위급한 순간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혁명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되였다. 오늘은 그의 동생 김은정동무가 희생된 언니의 몫까지 합쳐 백두전역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바치고있다.

그만이 아니다. 자강도려단 정철혁, 정철민, 함경남도려단 김금남, 김효심, 황해남도려단 오은정, 오은심동무를 비롯한 백수십명의 형제, 남매, 자매들과 10여쌍의 부부, 30여명의 부모와 자녀들, 30여명의 가정부인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들끓는 백두전역으로 온 나라 청년학생들의 지극한 마음이 끝없이 굽이쳐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높이 평가하신 백두청춘들과 숨결도 마음도 같이할 진정을 안고 강계포도술공장 로동자 리창명,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사서 조향순, 조선국제태권도려행사 안내통역원 리은경,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지도원 임혁철, 대외경제성 아래단위부원 강금철, 옹진광산 차광수 청년돌격대 대장 리금철,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 학생 김주혁동무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청년들과 각급 학교 학생들, 근로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뜻깊은 10월이 다가올수록 백두전역으로 지원의 물결이 더욱 거세차게 굽이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부르심에 산악같이 일떠서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그들의 드높은 기세와 열의를 북돋아주며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국의 청년학생들,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약동하는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사상정신세계와 진취적인 일본새에 떠받들려 완공의 날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치곤

보석같은 마음, 뜨거운 지원열의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으로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지성이 그칠새없이 닿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여야 합니다.》

평양시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원들속에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였다.

특히 대동강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의 많은 녀맹원들은 지난 3월말부터 돌격대를 뭇고 잔디심기와 물주기, 건설장지대정리 등을 맡아 건설자들을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이들은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는 미더운 건설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안겨주었으며 쉴참에는 혈육의 정을 담아 리발과 옷수리도 해주면서 건설자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에서는 30여명의 교원, 학생들로 기동예술선동대를 뭇고 건설현장에 자주 찾아와 공연을 진행하여 공사장전역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철도성청년돌격대 대대참모 김수현동무와 체육성 체육시설관리국 로동자 배왕철동무도 있다.

이들은 돌격대원으로서 건설장에서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성의껏 마련한 많은 물자를 안고와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건설현장에서 자재보장과 인수사업을 맡은 배왕철동무는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건설자들이 맡은 과제를 제 기일에 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대외경제성 부원 장은정동무와 외교단사업총국 의사 김순옥동무도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설 불타는 마음을 안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하루일이 끝나면 건설장에 찾아와 야간지원돌격대활동을 벌리였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건설장의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하면서 이들은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평양학생소년궁전 로동자 강예화동무도 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건설자들을 평양속도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각지의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소년들도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였다.

지난 시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한 평양외국어대학 리수련학생과 리심학생도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면서도 여러차례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물자들을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대동강구역 문수초급중학교 장영복, 동대원구역 문신초급중학교 김국성, 문신소학교 주려명, 남포시 대안구역 대안초급중학교 김현화학생들도 부모들과 힘을 합쳐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온 나라 인민의 이런 뜨거운 지원열의에 의해 지금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체육관이 새로 일떠섰다

어랑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어랑군에서 군체육관을 새로 훌륭하게 건설하였다. 건축면적이 1200여㎡에 달하는 체육관에는 롱구, 배구, 정구, 바드민톤,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는 물론 실내축구와 중경기도 할수 있는 조건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훌륭히 꾸려진 선수대기실도 갖추어져있고 체육관바닥에는 훈련과 경기에 편리하게 폭무이널을 깔았다. 수천석의 관람석을 가진 경기장을 배경으로 푸르른 소나무숲에 자리잡고있는 체육관의 전경은 볼수록 이채롭다.

군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대중체육중심기지로 광범하게 리용할수 있도록 체육관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체육관설계를 특색있게 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세멘트와 통나무, 철근을 비롯한 자재와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최인상동무를 비롯한 건설지휘부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여러가지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이들은 기초파기와 골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낀데 이어 모든 공사를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한개의 질량만도 3t이 넘는 트라스 10여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고 그 조립을 한주일동안에 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건설자들은 체육관을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세울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지붕공사를 비롯한 건설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리호혁동무를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이 체육관건설을 적극 도와주었다. 어랑파수농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가두인민반원들도 체육관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10개월동안에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대중체육을 계절에 관계없이 할수 있는 체육관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체육훈련과 경기조건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체육관은 체육선수후비들을 양성하고 군에 대중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은남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숭고한 정신, 값비싼 재부

사리원시 신양동 37인민반 전쟁로병 강진순로인

사리원시 신양동 37인민반에 살고있는 전쟁로병 강진순로인을 가리켜 사람들은 꽃씨할아버지라고 정담아 부른다. 40여년간의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된 그날로부터 근 20년간 매일 아침 상매산언덕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여오던 강진순로인이 꽃과 인연을 맺게 된데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화의 그날로부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들이 조국앞에 세운 빛나는 위훈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소중하고 귀중한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해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리원시를 꽃의 도시로 만들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을 때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리원시민들 누구나 다 그러하였지만 강진순로인이 받아안은 충격은 남다른것이였다.

상매산언덕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주변관리사업을 해오면서도 우리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하군 하던 그는 어느날 신문에 실린 상식자료에 눈길을 멈추었다.

꽃이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였다. 한참 읽어보던 그의 마음속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향기그윽한 꽃속에 모시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하지만 그는 선뜻 결심할수 없었다. 평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꽃은 너무도 생소한것이였다.

《난 우리 사리원을 꽃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전달받고서야 정신을 차렸구나.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충정다해 모시겠다고 말만 하면서 주저하고있을 때 장군님께서는 우리 사리원시민들모두가 꽃향기속에서 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강진순로인의 심장속에서는 군사복무나날의 정신과 기백이 되살아올랐다.

전화의 그날로부터 40년세월이 넘는 복무의 나날 언제나 《알았습니다.》의 힘찬 대답소리와 함께 결사관철의 한길을 걸어온 로병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교시를 무조건 집행해야 할 신성한 전투명령으로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강진순로인은 꽃과 인연을 맺게 되였다.

그는 자기 집뜨락에 꽃밭을 꾸리고 좋은 종자의 꽃모를 키워 상매산에 옮겨심는 한편 온과, 봉산 등 도안의 여러곳을 찾아다니며 꽃씨들을 채집하였다.

명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풍치좋은 정방산으로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낼 때 바로 그 아름다운 산천을 위해 전화의 나날 피흘려 싸운 로병은 또다시 험한 산발을 톺으며 꽃씨를 털었다. 나이 여든을 넘긴 몸으로 높고 험한 산발을 누비며 꽃씨를 채집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언제인가 비오는 날 산비탈에서 굴러내려 심한 부상을 입고 집으로 왔을 때였다.

아들 강현남동무는 아버지의 이마에 있는 피자욱을 닦아주며 아버지가 아니면 사리원땅에 꽃을 가꿀 사람이 없을가봐 그러는가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는 아들에게 강진순로인은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집만 봐도 사리원시를 꽃의 도시로 꾸릴데 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을 땐 누구나 벅적대며 꽃씨를 구한다, 심는다 했지만 지금은 누가 그때처럼 열성이니? 너나없이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을 텐데 하고 나앉는다면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은 언제 관철되겠느냐 말이다.》

그날 자식들은 아버지의 결곡한 마음앞에서 자신들을 돌이켜보았다. 그후 온 가족이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주체98(2009)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을 때였다. 이날 농장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농장전망대에 오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망대주변에 무성하게 피여난 코스모스를 보시고 아주 보기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가을바람에 싱싱한 향기를 풍기며 절세위인을 맞이한 환희에 설레이던 그 코스모스들은 바로 강진순로인이 이곳 농장원들과 함께 직접 씨를 뿌리고 가꾼것이였다. 다음날 자기를 찾아온 미곡리당위원회 일군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강진순로인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그득히 고여올랐다.

온 한해 현지지도강행군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순간이나마 기쁨을 드렸다는 무한한 행복감으로 로병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였다.

눈물도 말라버린다는 팔십고령의 로인의 심장속에서 솟구친 뜨거운 눈물, 그것은 수령의 명령관철에서 삶의 본분을 찾고 수령의 기쁨에서 인생의 영광을 찾을줄 아는 참된 전사만이 흘릴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량심과 의리의 결정체였다.

강진순로인은 더욱 열심히 꽃을 가꾸어 사리원시만이 아닌 금수산태양궁전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을 비롯하여 470여개 단위에 120여㎏에 달하는 꽃씨들을 보내주었다.

지금도 그의 집 옷방에는 갖가지 꽃씨들로 가득찬 지함들이 쌓여있다. 그것은 수령의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한 전쟁로병이 충정의 땀을 바쳐 마련해놓은, 혁명의 2세가 이 땅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값비싼 재부이다.

자신이 틀어잡았던 혁명의 총대와 함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준 로병, 할아버지, 아버지세대가 간직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심을 그대로 받아안고 강진순로인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길을 걸어가는 강현남, 김성옥, 강은심동무들의 한생의 리정표가 새겨져있는 꽃씨지함들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한다.

혁명의 전세대들로부터 우리가 제일먼저 물려받아야 할 재부, 우리 역시 먼 후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승철진

오늘도 울리는 심장의 박동소리

동대원은하피복공장 지배인이였던 최용남동무

비록 심장의 박동은 멎었어도 어제도 오늘도 사람들의 추억속에 길이 남아있는 삶은 영원한것이며 우리모두에게 참된 생에 대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집단의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사는데 있습니다.》

지난 6월 어느날 최용남동무는 공장일군들의 한결같은 권고에 의해 김만유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었다. 지난 시기부터 느끼군 하던 심장아픔이 그즈음에 와서는 더 심해졌던것이다.

의사협의회에서는 그에게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당장 입원치료를 받을것을 요구하였다.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안해도 이번만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그러는 안해에게 최용남동무는 말했다.

《우리 공장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당창건 70돐전으로 무조건 넘쳐 수행하겠다고 당앞에 결의했소. 내 이제 그 일을 다 끝내고 치료를 꼭 받겠소.》

그날 최용남동무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로 공장으로 향했다. 그는 생산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전보다 더 많이 뛰여다니였다.

며칠후 최용남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화성온실남새농장의 무난방태양열박막온실 외부개건공사장으로 달려가 땀으로 옷을 적시며 일손을 놀리고있었다. 이때 한 종업원이 급히 달려와 지배인에게서 삽을 빼앗았다.

《지배인동지, 이렇게 무리하다가 또 쓰러지면 어쩔려구 그럽니까.》

그의 말에 지배인은 땀을 훔치며 빙그레 웃기만 했다.

그리고 그는 곁에 있던 오이랭국이 담긴 바께쯔를 종업원들앞에 놓아주고나서 인츰 자리를 떴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지배인이 또다시 심장이 조여드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애써 감추고있다는것을 몰랐다. 그로부터 얼마후 종업원들은 뜻밖에도 흙무지우에 쓰러져있는 지배인을 발견하게 되였다.

《지배인동지!》

종업원들이 달려와 지배인을 붙들고 애타게 불렀으나 그는 대답이 없었다. 불편한 몸을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종업원들과 함께 일손을 놀리던 지배인, 그는 이렇게 생을 마치였다.

《늘 생산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며 차근차근 일하는 법을 가르쳐줄 땐 꼭 다심한 아버지같았습니다.》

《구내식당의 주방에 들어서도 꼭 료리사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지배인동지였습니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최용남지배인에 대하여 말하는 종업원들의 추억은 참으로 뜨거웠다.

다섯해전 어느날이였다.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온 공장이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부글부글 끓고있을 때 뜻밖에도 기대 하나가 동음을 멈추었다.

종업원들의 얼굴색이 삽시에 어두워졌다. 모두가 안타까와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는데 최용남동무가 공장의 기술자들과 함께 다급히 현장으로 들어섰다.

《함께 의논해봅시다.》

공장기술과장, 기사장으로 오래동안 일해온 최용남동무는 손꼽히는 발명가, 창안명수였다. 그의 이런 능력은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최용남동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공장에 배치되였을 때 당시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에서 품들여 키운 제대군인, 대학졸업생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는 그렇게 살려고 애써 노력하였다. 대학시절에 그러했던것처럼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과학기술서적들과 새로 나온 기술자료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그 나날에 천풀기 및 길이측정장치를 가진 천필검사기발명을 비롯하여 그가 생산에 창안도입한 새 기술만 하여도 20여건이나 되였다.…

이날 최용남동무는 공장의 기술자들과 함께 지혜를 합쳐 짧은 시간에 설비를 되살려냈다. 그리하여 뜻깊은 그해 인민경제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생활의 어느 구석에서도 자기를 위해 내는 시간을 조금도 찾아보기 힘든 참된 일군이였습니다.》

부원 허정숙동무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추억을 더듬었다.

몇해전 초겨울이였다. 현장을 돌아보던 최용남동무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몇명의 처녀종업원들이 기대옆에 장갑을 놓고 일하는 모습이 보였던것이다. 그제야 그는 현장의 온도가 낮다는것을 느끼였다. 그날 저녁 최용남동무는 공장 초급당일군과 마주앉았다.

《면목이 없습니다. 생산이 중요하다고는 하면서도 그 담당자인 종업원들에게는 낯을 적게 돌렸으니 말입니다.…그들이 제 딸들이라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최용남동무의 목소리는 저으기 갈려있었다. 그러는 지배인앞에 초급당일군은 한장의 도면을 내놓으며 말했다.

《제 잘못도 큽니다.…자, 이것이 지배인동지가 설계했다던 무동력보이라설치도면이라지요. 함께 토의해봅시다.》

두 일군은 도면을 놓고 토의를 마친 후 밤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부터 공장에서는 생산현장의 온도를 보장하기 위해 무동력보이라를 설치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 앞장에는 지배인이 서있었다.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최용남동무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우리 종업원들이 전투를 하고있는데 무얼 좀 준비해가지고올수 없겠소?》

그런데 대답대신 갑자기 울먹거리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오늘이 내 생일인데 잠간 들어왔다 가면 안되나요?》

그 말에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최용남동무는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아버지를 종일 기다렸을 딸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왔다.

가족들앞에 미안스러운 마음뿐이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데 뜻밖에도 최용남동무의 온 가족이 많은 후방물자를 준비해가지고 공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감단계에서의 무동력보이라설치작업에 여념이 없는 로동자들의 일손도 도와나섰다. 그러는 가족들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최용남동무의 눈굽은 젖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한 종업원의 가정이 뜻밖에 재난을 당하였을 때 새 집도 지어주고 집에서 많은 생활용품들을 들고나온 이야기며 일찍 부모를 잃은 한 처녀를 위해 8년세월 그의 생활을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 결혼상까지 차려준 이야기, 공장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한 기능공이 변함없이 혁신자의 영예를 떨치도록 적극 도와준 이야기…

이런 최용남동무였기에 그의 희생을 두고 종업원들모두가 그토록 가슴아파하는것이 아니랴.

* *

공장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동대원은하피복공장》이라는 현판이 우렷이 안겨왔다. 최용남지배인이 공장을 드나들 때마다 정답게 바라보았을 현판, 제 집주소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며 나의 공장, 나의 일터라 정담아 불러보았을 그 현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그는 생을 마치였어도 공장을 위해, 집단을 위해 그의 심장이 내뿜던 열정의 불길은 오늘도 당창건 70돐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공장로동계급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고.

본사기자 오은별

백두전역에로 이어진 복무의 길

량강도 백암군 읍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백인산동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려단 지휘관들과 운전사들은 대형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는 한 영예군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가 바로 백암군 읍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백인산동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총대를 들고 복무의 길을 억세게 걷던 백인산동무가 뜻밖의 일로 부상을 당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였다.

비록 두다리를 잃었지만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그는 인생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군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백암군 인민들의 축복속에 서정련동무와 가정을 이룬 그의 마음속에는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칠 결심이 굳게 자리잡았다.

지난 5월말 백인산동무와 그의 안해 서정련동무는 백두전역으로 달려와 스스로 편제없는 돌격대원들이 되였다.

운수기동려단 수리기지에 전투지지를 정한 그들은 매일 평균 10여개의 다이야를 수리하며 낮과 밤을 이어갔다. 그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피로가 겹쌓였고 어떤 때에는 참기 어려운 아픔도 있었다.

간혹 주저앉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안해 서정련동무가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낮에는 남편의 일손을 도와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뛰여다니고 밤에는 골재선별장에 올라가 언제건설자들과 함께 땀흘리며 일하는 서정련동무, 몸이 불편한 남편을 거들어주는것만도 힘에 부치지만 자그마한 내색도 없이 언제나 웃으면서 모든 일을 걸싸게 해제끼는 그는 진정 영예군인 백인산동무의 둘도 없는 혁명동지였다.

그들은 불타는 의지와 순결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800여개의 다이야를 수리하여 려단의 물동수송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백인산동무와 서정련동무에게 있어서 하루일을 마치고 치솟는 발전소언제를 바라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였다.

정말 수고했다는 운전사들의 인사말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표창이였다.

순간도 멈춤없이 달리는 자동차들의 경적소리는 이길을 끝까지 가라고 고무하는 격려의 웨침이였다.

백두전역에로 이은 복무의 길, 정녕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고마움에 보답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인간의 량심의 길인것이다.

글 및 사진 리호성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중대한 전환적계기

전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에로 쏠리였다. 불안과 우려속에 손에 땀을 쥐고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공동보도문이 발표된데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있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것은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공동보도문의 발표는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한 력사적합의이다.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를 물아내고 평화를 안아온 그야말로 극적인 전환이다.

무력충돌에로 치달던 위험천만한 위기가 가셔지고 북남사이에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된것은 우연히 마련된것이 아니다.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성과가 이룩된것은 전적으로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막고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견결한 의지와 원칙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번에 우리는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열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이 안아온 승리이다. 그 누구의 지원도 동정도 없는 력사의 폭풍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과 민족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여기에 우리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것이다.

사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하였다. 이번 사태는 원인모를 사건을 놓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한 결과에 일어난것이다. 서로 마주앉아 사태의 진상을 해명하기도 전에 일방적행동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나아가서는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밖에 없다는것을 최근의 위험천만한 사태는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번 공동보도문의 발표는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으로 된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데 국한되여서는 안된다. 북과 남은 긴급접촉에서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한데 기초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발전을 도모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사와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북과 남은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에서 서로 마주앉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공동의 파제에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북남관계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았다. 바로 여기에 이번 접촉이 가지는 의의가 있다.

현실은 북과 남이 일촉즉발의 사태를 해소한데 머물것이 아니라 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길로 전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은 응당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는것으로 온 겨레의 절절한 기대와 시대의 엄숙한 요구에 따라서야 한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 올해에 북과 남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북과 남이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이것은 북과 남이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민족의 장래운명, 공동의 리익을 앞에 놓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길로 손잡고 나아가겠다는것을 온 민족앞에 확약한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과 공동보도문에 대해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는것도 그때문이다.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공동보도문의 발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숭고한 자각을 백배해주는 소중한 민족적합의이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전과정과 그 결과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긴급접촉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더이상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며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전쟁연습에 매여달리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북남사이에 신뢰와 단합을 실현할수 없으며 대결과 충돌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서로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공영의 립장에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여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수 있다.

6.15통일시대가 보여주듯이 북남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그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들이 도전해나설수 있다. 그것을 방임해둘 때 북남관계는 또다시 곡절을 겪게 된다.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대결을 부추기는 불순한 준동을 철저히 억제함으로써 북과 남이 모처럼 마련한 화해의 국면을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할 중임이 북과 남의 당국자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북과 남은 이번 합의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의무로 자각하고 그 리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결과가 빈 종이장으로 남는가 아니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들이는가 하는것은 이번 공동보도문을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보고 리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온 민족과 력사가 지켜보고있다.

최 철 순

필승불패의 선군정치 만세!

경 축 행 사 진 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돐에 즈음하여 꾸바혁명무력성소속 호쎄 마르띠군사기술대학에서 경축집회와 영화감상회, 예술공연이 26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이 모셔져있었다.

행사에는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혁명무력성 제1부상 겸 혁명무력 총참모장인 알바로 로뻬스 미에라를 비롯한 혁명무력성 일군들, 호쎄 마르띠군사기술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꾸바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영화 《오늘의 평양》이 상영되였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꾸바혁명무력성 대외관계국 국장 로께 가리고 안드레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60년 8월 25일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발전의 요구로부터 군사를 최우선시하는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앞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여야 할 과업들이 나섰다.

사회주의의 급속한 전파를 막아보려는 미제의 책동으로 하여 세계정세는 복잡다단하였지만 조선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갔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외세의 침략책동에 대처할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보유하였으며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장장비현대화와 새 기술개발에서도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꾸바와의 협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올해 선군절은 꾸바와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과 더불어 우리 꾸바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나라의 군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행사참가자들은 꾸바혁명무력성에서 준비한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담 화 발 표

선군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엠. 자한기르 칸이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력사의 날에 즈음하여 불패의 선군정치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리며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에도 굴함없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사회주의조선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만세!

필승불패의 선군정치 만세!

날로 발전하는 말레이시아

령토의 70%가 열대림으로 뒤덮여있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있다.

일찍부터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략탈은 그칠새 없었다. 외래침략자들은 이 나라에서 수많은 지하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해갔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통치로 이 나라 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말레이시아는 1957년 8월 31일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독립을 이룩하였다.

독립후 말레이시아인민은 식민지 낡은 잔재들을 털어버리고 사회적진보와 번영, 발전을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종려기름, 천연고무, 석생산국이다.

1970년이후부터 공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의 다각화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공업에서 전기기계 및 전자산업, 채굴업, 방직업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생물제약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전력총생산의 11%를 재생가능한 에네르기로 보장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대용에네르기개발사업, 연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농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이를 위해 벼농사와 남새재배, 과수업 등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인재육성과 기술발전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성원국으로서 지역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해나가고있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와 쌍무무역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고 3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번영, 발전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오늘은 말레이시아독립 58돐이 되는 날이다.

본사기자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합동훈련 진행

집단안전조약기구의 집단신속반응무력합동훈련 《협동작전-2015》가 최근 로씨야에서 시작되였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인 로씨야, 아르메니야, 벨라루씨,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따쥐끼스딴의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국방건설에 힘을 넣을 립장 표명

인도네시아대통령 죠꼬 위도도가 14일 한 연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방건설을 다그쳐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민족산업에 의거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국방부문에 대한 국가예산을 더욱 늘일것이라고 밝혔다.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노력

만마에서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11일 정부는 큰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마련해주고 새 살림집을 지어주며 그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브라질의 커피밭

정세안정에 백해무익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되였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28일 막을 내리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얼마전에 있은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결과 긴장완화와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리행해나가야 할 지금 해마다 벌어지고있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정세와 북남관계에 미치는 파국적후과와 위험성에 대해 되새겨보지 않을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그것이 《년례적》이고 《방어적》인것이라고 광고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미사려구를 다 동원해도 이 전쟁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지금은 랭전시대도 아니며 남조선에서 허구적인 《남침위협》설이 민심을 오도하던 때도 지나갔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외국의 군대나 군사기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련합하여 군사훈련을 한적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외세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은 군사동맹강화의 중추를 이루고있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이 평하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과 미국의 군사동맹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있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심히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이번에 벌어진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도 남조선미국련합무력의 공격태세를 완비하고 연습을 불의에 실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매우 위험한 예비전쟁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대규모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북과 남에 펼쳐지고있는 관이한 현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우리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나 당창건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안아오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고있다. 그 불꽃튀는 대건설전투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인민군군인들이다. 남조선에서 요란한 전쟁연습의 폭음이 울리던 그 시각에도 우리 군인들은 인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발전소와 공장, 학교와 살림집들을 일떠세우는 평화적건설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 누구에게도 공격적인 군사행동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인민군군인들의 애국의 열정과 군민대단결의 위력에 의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은 그 어떤 정세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평화수호의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어떤 사태가 빚어졌는가.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의 전지역을 작전범위로 하여 실시되였다. 또한 거기에는 중무장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의 방대한 무력은 물론 각급 행정기관들과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였다. 이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범위를 훨씬 넘어섰으며 전방과 후방이 공격적으로 편성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욱 위험한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번 연습에 새로 작성한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한것이다. 이 전쟁계획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작성된 《작전계획 5029》와 전면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 등을 하나로 통합한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것이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번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년례적》이고 《방어적》인 일반군사훈련이 아니라 철두철미 북침핵선제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전쟁불장난이였다.

더우기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시기에 벌어진 이번 합동군사연습이야말로 순간에 터질수 있는 핵전쟁의 뢰관이였다.

세계전쟁사에는 침략적인 군사연습이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어진 실례가 적지 않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함께 빈번히 감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이 어떤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우리 민족은 조선반도에서 또 한차례의 전쟁이 터지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북남관계의 개선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것은 온 민족의 공통된 지향으로 되고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우리 공화국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얼마전 북남사이에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는 속에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열리고 온 겨레의 환영을 받는 공동보도문이 발표된것은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막고 평화와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견결한 의지와 완강한 노력의 산물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우리와 좋은 합의도 이룩한것만큼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온 민족이 바라는대로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절제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민족의 근본리익을 해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을 야기시킬뿐이다.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광고하며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것은 평화를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이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동족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행위이다. 그러한 일방적인 사고와 행위가 종당에는 어떤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되는가 하는것을 이번의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해 잘 알았을것이다.

군사적위협으로써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다. 대결과 충돌은 북남쌍방에 다같이 해로우며 돌이킬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뿐이다. 북과 남은 어렵게 마련된 현 긴장완화의 흐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있은지 며칠후인 지난 8월 28일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2015 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것을 력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은것은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극히 도발적인 《2015 통합화력격멸훈련》은 정세안정에 백해무익한것이다.

상대방을 자극하며 긴장을 조성하는 이런 군사적도발행위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고 정세의 안정적관리에 저해를 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저촉되는 그 어떤 도발행위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할것이다.

박 철 준

오늘의 세계

인권유린의 란무장—미국

최근 미국의 워싱톤에 있는 어느 한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나라의 한심한 인권실태를 개탄하였다.

보고서는 미주리주의 퍼구슨시에서 일어난 백인경찰의 흑인살해사건을 비롯하여 미국내에서 인권유린행위들이 방임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및 법적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당국이 국내외에서 불법무도한 도청감시행위를 일삼아온데 대해서도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이 더이상 미국식《자유》와 《인권》에 대해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의 모범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자국내에서까지도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겠는가.

미국에서 흑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죄 아닌 《죄》로 갖은 멸시와 학대를 받아오고있다.

얼마전 미주리주의 퍼구슨시에서 또 한명의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의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주리주 퍼구슨시는 1년전 적수공권의 18살 난 흑인청년 브라운이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곳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맞으며 이곳에서는 당국의 인종차별정책과 백인경찰들의 야수적만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도중 항의시위를 진압하는 백인경찰에 의해 해리스라는 흑인청년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전해진데 의하면 이번에 백인경찰의 총에 맞은 해리스는 바로 브라운의 친구였다고 한다.

사건이 터지자 경찰측은 피해자가 시위참가자가 아니라느니, 무기를 가지고 경찰들을 위협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해나섰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이 그가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그로 하여 군중의 분노가 더한층 솟구친 가운데 텍사스주에서 19살 난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였다.

이렇게 되자 각계층 군중은 련이어 감행된 살인만행을 준렬히 단죄하면서 경찰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바빠맞은 경찰당국은 그 흑인청년이 현장에서 자동차를 훔치려고 시도하다가 단속하는 경찰들에게 반항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파렴치한 거짓말로 저들의 행위를 비호해나섰다.

실로 《폭군경찰》, 《살인경찰》로 악명높은 미국경찰의 전횡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위스콘신주의 매디슨시에서 무방비상태의 흑인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시에서 경찰이 무고한 흑인청년을 도적으로 몰아 총으로 쏘아죽인 사건, 메릴랜드주의 오윙즈밀즈에서 3명의 경찰이 한 살림집에 뛰여들어 41살 난 흑인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 등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만행이 미국도처에서 그칠새 없이 일어났다. 상반년에만도 미국에서 1 100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되였는데 그들 대부분이 흑인들이라고 한다.

로씨야의 한 정치평론가는 미국력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선출되였을 때 그들은 미국인으로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권리가 향상될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그러한 희망은 한갖 환상에 지나지 않은것이였다고 평하였다.

오바마의 21세기 정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성원인 흑인 브리태니 팩크니트는 무고한 흑인들에 대한 경찰들의 계속되는 살인행위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끝장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는 흑인들만이 아니다.

미련방수사국 등 사법경찰기관들이 2~3년동안 레이다장치를 리용하여 미국시민들의 주택내부의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감시해온것으로 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되여있는 헌법은 그야말로 명색뿐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고 미국은 국내에서뿐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권유린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의 80여곳에 도청시설들을 설치해놓고 수십개 나라 고위급인물들은 물론 국가수반들까지도 모두 도청대상으로 정하고 불법무도한 감시행위를 일삼아온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제반 사실들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인권불모지 미국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왕초 미국이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들기 전에 곪을대로 곪은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터 바로잡는데 전념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미국의 독점적인 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대항하여

얼마전 로씨야가 니까라과에 글로나쓰(위성항법체계)를 도입하기로 이 나라와 합의하였다. 두 나라사이의 합의에 따라 첨단기술로 장비된 위성지상쎈터가 니까라과에 건설되게 된다고 한다.

니까라과정보통신 및 체신국장은 글로나쓰의 도입은 이를 통해 자기 나라가 지진, 가물, 태풍 등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얻어 그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자연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목적밑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언급하였다.

로씨야는 이미 여러 나라들과 글로나쓰리용과 관련한 문제를 합의하였다. 지난 2013년말 벨라루씨와 글로나쓰의 리용 및 개발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7월 꾸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글로나쓰리용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운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최근에 진행된 브릭스수뇌자회의에서 성원국지도자들은 우주를 평화적연구분야로 만들것을 주장하면서 성원국들이 로씨야의 글로나쓰를 공동으로 리용하는데서 보다 적극 협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로씨야에서 글로나쓰를 지구적범위에서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로나쓰는 이전 쏘련시기인 197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10월부터 위성들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쏘련의 붕괴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1990년대말까지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것이 2001년부터 글로나쓰개발은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선정되게 되였으며 이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로씨야는 2007년에 전국적규모에서 글로나쓰를 도입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왔다. 결과 2010년에 로씨야의 전지역에 글로나쓰를 도입할수 있게 되였으며 2011년 10월 위성들의 궤도배치가 완전히 끝나면서 전지구적범위에서 글로나쓰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였다.

유럽동맹이 갈릴레오(위성항법체계)계획추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3월 갈릴레오계획의 일환으로 2개의 새로운 위성이 발사되여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였다. 이로써 갈릴레오는 궤도상에 8개의 위성을 보유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현재 시험중이거나 조립중에 있는 4개의 위성을 올해말경에 발사할것을 계획하고있다.

30개의 위성과 하부구조로 구성될 갈릴레오계획이 실현되면 고도로 정확한 항법과 위치자료를 보장받게 된다. 자료에 의하면 갈릴레오는 ㎝정도까지의 정확한 위치자료를 제공할것이라고 한다.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들을 구축하기 위한 이러한 국제적움직임은 미국의 독점적인 전지구위치측정체계(GPS)에 대항하기 위한것이다.

지난 시기 전지구위치측정체계는 미국의 독점물로 되여왔다.

랭전종식후 GPS를 민수용으로 개발한 미국은 그 응용범위를 군사부문에로 확대하였다.

미국은 GPS를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실현하며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책동에 써먹었다.

미국은 무료봉사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체계신호수감설비 등을 비싼 값으로 팔았다. GPS를 리용하는 나라들은 하는수없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돈을 지불하게 되였다. 이렇게 미국은 GPS를 주요한 돈벌이수단으로 삼았다.

미국은 GPS의 핵심기술을 틀어쥐고 그것을 일체 비밀에 붙이면서 다른 나라들을 틀어쥐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였다. GPS에 얽매인탓에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은 GPS를 군사분야에까지 광범히 리용하면서 군사적패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1990년대에 있은 페르샤만전쟁과 발칸전쟁때 유럽이 GPS를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작간을 부린 사실, 지난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GPS를 리용하여 이라크를 손쉽게 강점한 사실 등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제반 사실들은 GPS를 리용하는 나라들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미국의 손탁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유럽동맹은 미국의 GPS에서 벗어나 자기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가질 결심을 확고히 하게 되였으며 이때부터 갈릴레오개발을 적극 추진시켜왔다.

오늘날 전지구위치측정체계분야에서 미국의 독점적지위는 나날이 허물어지고있다.

앞으로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가지려는 나라들은 더욱 늘어날것이다.

림 원

ㄱ-511371(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